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 明 會
編輯人 金 嵛 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244-3717
對替口座：010983~31~0 513119
私書函：서울清凉郵遞局137號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1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年辭

会長 政治学博士 金 明 會

天下에는 春秋의 秩代가 있고 四時의 榮枯가 끊임없이 循環하여 이제 人類는 癸亥年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보내고 甲子年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그 感懷 無量하며 全宗親의 家庭에 幸運이 깃들고 宿願의 統一이 하루 속히 이룩되기를 비는 마음 懇切합니다。

해마다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마지하게 되면 묵은 해를 反省하고 『希望찬 새해』라고 自負하면서 새로운 設計를 세워 보았지만 그 해를 보낼 때는 不安과 苦脳속에서 지낸、失望의 한해에 不過 했읍니다。

더욱이 今年은 六甲의 마지막 해인、癸亥年을 보내고、새로운 六甲으로 出発하는 甲子年으로、다시 六十年間을 前進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六十年의 歲月을 懷古할 때、이는 오로지 受難과 患乱의 時代였읍니다。一九二四(甲子)年에서 二十年間은 日帝의 侵略을 받은 被壓迫의 時代이며 一九四五年(乙酉)에는 三十六年間의 桎梏에서 벗어났으나 国際思潮는 드디어 思想的으로 対立되고 그 餘波는 우리 国土를 分断하게 되어 一九五〇年에는 共産主義의 侵略을 받아 骨肉相争의 無謀한 戦争으로 国土는 灰燼되고 수많은 壯丁들이 草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数千萬의 罹災民과 離産家族을 남기고 말았읍니다。

거리에는 父母 잃은 孤兒들을 保護할 길이 없고、失業者들은 盜賊과 暴力으로 生業을 삶게되니、国政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政治人은 利権取得에 汲汲하며、甚之於 公務員들 까지도 生活을 위해서는 不正을 일삼지 않을수 없게 되니 国民은 政府를 믿을 수 없고 政府는 国民을 撫摩할 道理가 없는 時代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세월이 十年、朴正熙 大統領의 英雄的인 政治手腕과 그 領導力은 飛躍的인 発展을 거두어、이제는 二十年의 세월에 不過하지만 中進国의 隊列을 넘어서서 先進国으로 向하는 段階에 서게 되었으니 이는 甚히 多幸한 일입니다。

이러한 患難의 時代가 連続되는 六十年間에도 우리 安東金氏는 꾸준히 宗事에 힘을 다한 結果로 七百年 宗史에서 가장 燦然한 자취를 남겼읍니다。

一九二四年인 甲子年에는 各派에서 派譜를 刊行했으니 이『甲子譜』는 어느 派宗中에서도 尚今 保存되어 있으며 丙寅年부터 始作한 大同譜의 刊行事業은 中途에서 여러가지 事情으로 九年間의 歲月을 거쳐서 一九三五年에 全 二十八巻이 完成되고 이를 契期로 서울에 大同宗約所를 設置하고 地方에는 郷宗約所를 設置하였으며 大同譜 刊行時 剰餘金으로 忠烈公 先祖의 位土를 拡張하였읍니다。

또 中央線 鉄道의 開通과 더불어 便利한 交通에 힘입어 지금까지 近方에 居住하는 後孫들만이 参祀하든 忠烈公先祖의 享祀를 全国各地의 後孫들 이 参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日本의 侵略戦争 은 드디어 世界大戦으로 拡大되니 그 負担은 더욱 무거워지고 生活은 極度로 窮乏해지자 自然히 宗事에 힘을 기우릴 餘暇를 얻지 못하다가、六・二五 라는 큰 戰乱을 몸소 또 겪게되고 南北이 分断되니 宗事는 더욱 뒤지고 말았읍니다。

혹 뜻있는 志士들이 大同譜의 時急함을 力說하고 나섰으나、大多数의 宗親들은「分断된 国土에서 무슨 大同譜냐?」하는 反対 意思를 세우게 되어 오직 族譜의 일은 한해 한해로 밀려오는 것이 또 十数年이 지내고 말았읍니다。

一九六八年에 와서는 뜻있는 人士들이 이를 慨歎하든 나머지 비로소 安東金氏大宗会를 創立하고 宗務를 執行하여 왔으나、아무런 財産도 基金도 없는 形便으로 다만 任員들이 誠意로 賛助하는 資金으로 겨우 維持해 옴도 十年間이나 되었읍니다。

이렇게 어려운 逆境속에서도 屈하지 않고 忠烈公 先祖의 神道碑를 建立하고 齋舍를 重建하는 等 다만 熱誠으로 꾸준히 일해 온 몇몇 宗親들의 뜨거운 誠力을 列先祖의 尊靈이 感應 하셨는지? 一九七七年부터 始作된 大同譜의 編纂事業은 想像外로 그 進度에 好調를 거두어、不過 二年만에 巨大한 作業이 完成되어 五千餘帙의 貴重한 譜冊을 全国 宗親의 家庭에 所重히 모시게 하였읍니다。이 五千帙의 分量은 四頓을 積載하는 自動車로 四十餘回 를 運搬할 수 있는 莫大한 作業을 二個年 以内에 完成하였다는것은 所任을 맡으신 여러 委員들이 서로 協助하고 勧励하면서 誠心껏 作業에 臨한 結果라고 보며 한편으로 全国의 宗親께서 大宗会의 事業을 믿고 指導에 應해 주신 高貴하신 精神의 所致라고 生覺합니다。

또 그 剰餘金으로 七百年 의 宿願인 우리 大宗会館을 構築해서 모든 宗務의 産室로 이룩하였고、陵洞에는 忠烈公 先祖의 影幀閣을 建立하고 檜谷洞 齋舍를 重建하는 等의 為先事業을 해 왔고、世系年鑑의 刊行과 会報의 発刊 같은 弘報事業도 활발히 運営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安東金氏 宗中에서는 六十年의 아름다운 宗史를 남기고 다시 六十年을 指向하는 甲子年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니 先祖님의 끊임없으신 加護에 対해 머리 숙여 冥福을 빌며 우리 宗親의 家庭家庭마다 幸運이 깃들것을 祈願하고 特히 우리 大宗会의 無窮한 発展을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飮水齋

前按廉使公派会長 曽坪 鳳 演

安東의 陵洞에 있는 忠烈公 先祖의 齋室이『飮水齋』임은 後孫된 者로서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事実이다。

玉覺子라는 책에 보면『飮其水而思其源＝그물을 먹을 때는 그 根源을 생각하라』고 하였으니 이 地球上에 無数한 動・植物들이 生成 化育함에 있어서 木火土金水의 五行이 다 必要하지만 特히『물』은 雨露의 惠澤을 입지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人間은 一時라도 물을 떠나서는살수 없다。우선 身体의 大部分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生活面에서도 生活用水나 農・工業用水等 一一히 列擧할수 없을 程度로 多様하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먼 山谷石間에서 솟아나서 이골 저골 물이 합해져 시내가 되고 또 그 시내 물들이 합해져서 江이 되어 마침내 바다를 이루는데 이 모두가 人間을 爲始한 動植物의 生活要素가 되는 것이다。

이 처럼 必要한 물의 根源은 바로 山이오、山에 育林을 잘하고 管理를 잘해서 水源이 確保되면 그 물을 豊富하게 쓸 수 있고 만약에 禿山이 되면 水源은 自然히 枯渴되며 따라서 人間의 生活에 莫大한 影響이 미치게 될것이다。

또한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적지않다。즉 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絶対로 그 本質에 變化가 없으며 恒常 順하고 逆行하지 않으나 많은 量이 合해서 洪水가 될 때는 그 偉力을 이길자 없는 것이다。그래서 孔子님도『以順天下 上下無怨』이라 하셨다。

이 처럼 물이 貴重하지만『내몸』보다는 貴重하지 못하다。富貴榮華가 아무리 좋다해도 내몸이 없으면 무슨 所用이 있으랴? 古人도『身外無物』이라 하였고 詩傳에도『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哀哀父母 生我劬勞 慾報之德 昊天罔極』이라 했으니 즉 아버님 날 낳으시고、어머님 날 기르시니 가진 고생 겪으셨네/어루만져 감싸 주시고 돌보시며 또 돌보시고/드나들 때 안아 주셨으니/슬프도다 父母님이시어 크신 은혜 갚고져 하나 하늘보다 더 넓어 한이 없도다/라는 뜻이니 나를 낳으신 아버님은 또 누가 낳으셨나! 한代 한代씩 거슬러 올라 가면 마침내는 忠烈公에서 또 太輔公에 이르게 된다。그래서 내 몸이 이世上에 出生한 것은 오로지 祖上님의 恩惠라는 根源을 알게 될 것이다。

물의 根源이 山이라면 그 山을 잘 保護管理함으로서 水源이 豊饒해지는 理致와 같이、사람의 根源은 祖上이니 祖上을 追慕하고 恭敬하는 것이 곧 내 몸을 為하는 길이요 子孫의 繁榮을 위하는 事業이 될것이다。

祖上님을 為하는 길도 墳墓・奉祀 齋室・位土・石儀・祠院 等 일일히 列擧하지 않아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為先事業은 오직 誠意의 有無가 問題이니 宗事에 対해서도 自己의 일로 生覺하고 盡心竭力하면 어떠한 事業이라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릇 大宗会는 発足한지 가 아직 年淺하나 刮目할만한 큰 事業들을 이뤘으니 忠烈公先祖의 神道碑 建立과 会館建立을 비롯해서 陵洞의 影幀閣 建立 檜谷洞의 齋室重修 等 빛나는 事業들을 많이 해 왔다。

(六頁에 계속)

謹賀新年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建築業 金 榮 俊
富川市 춘의동 一七三－一八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定 默
安養市 冠陽一洞 三二九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在 起
水原市 栗田洞 二〇七－一二 三統三班

反共聨盟平昌支部長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容 郁
平昌郡道岩面横溪里三六五－二一
電話：四四－〇 三 六 五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世 鏞
華城郡 長安面 錦衣里

清州司法書士会 会長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章 會
清州市 石橋洞 一二六
司法書士会舘 三〇三

清州工業団地 理事長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泰 友
清州市 壽洞 三五三－一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 秉 默
江陵市 魯岩洞 六八八
電話：自 五 三 七 七 〇〇
事 三 六 七 〇〇

海東名將傳 (3)

김 방경이 개선하고 돌아오자 왕은 사자를 보내 교외(郊外)에서 맞아 들이고 그 공을 논하여 수 대위 중서시랑 평장사(守大尉中書侍郎平章事) 의 벼슬을 더하였다。

적은 탐라로 들어가서 내외성(內外城)을 쌓고 험난한 곳을 믿고서 더욱 창궐 하였고 때때로 육지로 나와 사람을 사로잡고 재물을 빼앗아 갔는데 안남(安南)⑫ 의 원(守)공 유(孔愉)도 사로잡아 갔으므로 바다 근방은 소연하였으며 경기도(京畿)로 통하는 길도 끊어졌다。

이렇게 되자 왕은 매우 근심하여 김 방경을행영 중군 병마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로 삼아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김 방경은 다시 군사를 단련하고 아울러 수군(水軍) 一만여명을 거느리고 흔도·홍다구와 함께 반남현(潘南縣)으로 나가 주둔하였다가 곧 여러 도(道)의 전선(戰船)을 떠나 보냈는데 다 풍파로 탕진되고 오직 전라도(全羅道)의 것 一六○척만 무사하여 이것으로 추자도(楸子島)에 이르러 바람이 자는 것을 기다렸으나 밤중에 비바람이 급하게 불어 그 향하는 곳을 알지못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 보니 이미 탐라에 가까왔고 파도는 치솟으므로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의지할 데를 잃어버렸다。

김 방경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였다。

"사직(社稷)⑬ 의 안전과 위험이 이 한번의 싸움에 달려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러자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자므로 중군(中軍)은 함덕포(咸德浦)⑭ 로 부터 섬으로 들어갔다。 이 때 적은 군사를 바위 틈에 숨기고 있다가 뛰어나와 큰 소리를 지르며 항거 하였다。 김 방경은 엄격한 말로 꾸짖으며 여러 배를 거느리고 진격하는데 대정(隊正)⑭ 고세화(高世華)가 몸을 내던지듯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자 군사들이 그 기회를 타서 서로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향하였다。 장군 나 유(羅裕)는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몰아쳐 많은 적을 죽였다。

그리고 좌군(左軍)전함 三十척은 비양도(飛揚島)로 부터 바로 적의 보루로 달려들어가니 적들은 그 기세에 눌려 도망하여 자성(子城)으로 들어갔다。

이에 관군은 외성(外城) 을 넘어 들어가서 화전(火箭)네개를 쏘아 불을 지르니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되자 적도들은 크게 어지러워지고 적의 우두머리 김 통정(金通精)은 그 무리七십여 명을 거느리고 산속으로 도망하여 숨고、적장 이 순공(李順恭)·조 시적(曺時適)등은 웃옷을 벗어 사지를 드러내고 나와 항 복하였다。 김 방경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자성(子城)으로 들어가니 남녀 백성들은 통곡 하였다。 김 방경은 "다만 우두머리만 죽일 따름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하고는 그 우두머리 김윤서 등 여섯사람을 잡아 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그 친당(親黨) 三十五 명을 사로잡고、항복한 무리 一천三백여명을 배에 싣고 그 나머지 백성은 모두 돌려 보내 옛처럼 편안히 살게 마련하였다。

이렇게 삼별초의 난을 평정한 뒤、혼도는 몽고 군사 五백명을 머물러 있게 하고 김 방경도 역시 장군 송보연(宋甫演) 등으로 하여금 경군(京軍) 八백명과 외별초(外別抄) 二백명을 거느리고 머물러 지키게 하고 군사를 돌렸다。

김 방경은 나주(羅州)에 이르러 사로잡은 적의 친당(親黨)은 다 조처하고 그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군사를 위로하였다。 한편 그 아들 수(綬=折의 初名)와 기후(祇候)김 감(金瑊)·별장(別將) 유 보(兪甫)등을 파견하여 왕에게 첩보를 올렸다。

김 방경이 개선하여 돌아와 배알하자 왕은 매우 후하게 위로하며 특히 붉은 가죽띠를 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장사들을 위로하며 도병마사(都兵馬使)의 성대(省臺)로 하여금 공을 논하게 하여 드디어는 김 방경을 시중(侍中)으로 삼았다。

가을에 김 방경은 세조의 분부를 받고 원나라로 갔는데 세조는 문지기에게 분부하여 맞아들여 승상(丞相)의 다음에 앉게하고 후하게 대접하며 금으로 만든 말 안장과 비단으로 만든 옷을 주며 비할데 없이 사랑하고 돌아올 때는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⑮의 벼슬을 주었다。

四、원(元)나라의 일본(日本) 정벌(상)

원종 一五년(서기 一二七四)에 원나라 세조(世祖)는 일본(日本)을 정벌하고자 하여 김 방경과 홍 다구에게 분부하여 전함(戰艦)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해에 원종이 돌아가고 충렬왕(忠烈王)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김 방경은 홍 나구와 함께 말을 달려 와서 위로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합포(合浦)③로 돌아갔다 (원 나라는 합포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 하였음)。

김 방경은 도원수(都元帥)흘돈(忽敦)과 부원수(副元帥) 홍 다구·유 복형(劉復亨)과 함께 전함을 검열 하였다。

김 방경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박 지량(朴之亮)·김흔(金折·곧 김 방경의 아들·初名綬)·임 개(任愷)는 그 부장(副將)이 되고、추밀원사(樞密院使) 김 신(金侁)은 좌군사(左軍使)·위 득유(韋得儒)·손 세정(孫世貞)은 그 부장(副將)이 되고 상장군(上將軍) 김 문비(金文庇)는 우군사(右軍使) 나 유(羅裕)·박 보(朴保)·반 부(潘阜)는 부장(副將)이 되었는데 이를 삼익군(三翼軍)이라 불렀다。

이에 몽고군사 二만五천명과 우리 군사 八천 명과 소공 (梢工)·수수(水手) 六천七백명과 전함 九백 척을 합포에 머물러 두고 여진군(女眞軍)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출발하였다。

여원(麗元) 연합군은 먼저대마도(對馬島)로 처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니 왜병(倭兵) 은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박 지량과 김 방경의 사위 조 변(趙抃)이 이를 쫓으니 그들은 항복을 청하였다가 다시 와서 대항하였다。 홍 다구는 박지량·조 변과 함께 왜병 一천여명을 쳐 죽이고는 배를 삼랑포(三郞浦)에 버려두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니 죽을 지경을 당한 왜병은 갑자기 내달아 중군에게 대들어 긴 칼을 가지고 좌우로 휘둘렀다。 이때 김 방경은 심어 놓은 것 같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효시(嚆矢)한개를 쏘아 신호를 하고 노여운 소리로 크게 꾸짖으니 왜병은 물러나 피하면서 도망하였다。 이럴 때 박 지량·김 흔·조 변 등은 힘써 싸워 왜병을 크게 파하니 시체가 삼대 같이 쓰러졌다。 도원수 홀 돈은 김 방경에게 말을 전네었다。

「몽고 사람들이 비록 싸움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어찌 이에서 더하리오?」

날이 저물어서 싸움을 그만 둘 때、김 방경은 홀 돈과 홍 다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병법에 "멀리 떠나와서 싸우는 군사는 그 날카로운 사기를 당하지 못한다"고 하였거니와、우리 군사는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이미 적의 지경에 들어와 있으므로、사람마다 스스로 잘 싸울 것이니 곧 맹명(孟明)이 배를 불질러 버리고、회음(淮陰)이 물을 등지고 싸우는 격이라 하겠으니、청컨대 다시 싸우도록 합시다。」

그러자 홀 돈은 이렇게 말하였다。

『병법에 적은 적이 군세다고 하더라도 많은 적에게 사로잡히는 바 된다고 하였소。 우리 피로한 군사가 날로 많아져 가는 지금 적을 대적하는 것은 완전한 계책이 아니니 군사를 돌리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오。』

이때 유 복형은 흐르는 화살에 맞았으므로 먼저 배에 올라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마침 밤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전함이 바위에 부딛쳐서 많이 부숴지고 김 신은 물에 떨어져서 죽었다。

김 방경 등이 합포로 돌아와서 사로잡은 포로와 얻은 기구와 무기를 왕과 세조에게 바쳤다。 왕은 추밀원사(樞密院使) 장일(張鎰)을 보내 위로하게 하고 김 방경을 먼저 돌아오게 하여 상주국 판어사대사 (上柱國判御史臺事)의 벼슬을 더하여 주었다。(다음호에 계속)

⊙宗　告

一九八四年度 通常会費 納付의 件

一九八四年度 通常会費를 定款 第六章 第二十五条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하오니 送附한 「대채용지」에 住所、姓名、金額을 記入하셔서 郵遞局에 提出하시면 送金料는 들지 않읍니다。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鍾禄
華城郡 正南面 諸岐里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서울·弘済国民学校
校長 金奎會
高陽郡 碧蹄邑 奈遊里 二四五−四

安東金氏清州宗親会 顧問
安東大宗会
理事 金亨會
清州市 石橋洞 一二五−九五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保成 漢薬房
漢薬 金永鐸(默)
大邱市 西区甘 三洞 二五−六
電話：五二−二二三三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安東金氏 大邱宗親会
会長 金思仁
大邱市 中区 市場北路 三四−二
電話：二二−六八一八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大邱市 八達市場
常任理事 金鳳俊(會)
大邱市 北区 魯院三街 一洞 八二七
電話：三二−八五一九

康津郡 郷校都有司
安東金氏 大宗会
理事 金敬默
全南 康津郡 郡東面 錦江里

서울特別市
綜合民願室
室長 金昌信
서울·西大門区 忠武路三街 三〇−六
電話：三六二−二一一四

一九八三年 十一月 二十六日字 京郷新聞 『記録전시』 欄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五百回 以上이나 無料弁論을 한 大宗会 副会長인 泰亨 弁護士의 事実이 記載되어 있었다。

翼元公派인 泰亨 副会長은 忠南 公州 胎生으로 가난한 家庭에서 苦学으로 考試의 関門을 通過하고 教育界에 投身 校長과 教育監을 歴任했고 이어서 弁護士 試験에 合格해서 開業한지도 数十年이 되나 언제나 弱者의 편에 서서 流暢한 論理로 法律의 条文을 討論하는 名弁護士이다。

大宗会에서는 一九七五年 六月 十四日에 開催한 総会에서 監事로 選任、다시 一九七七年 十一月 二十六日에는 副会長으로 選任되어 為先事業과 大宗会의 発展에 物心両面으로 献身한 労力家이며 그 至大한 功績은 높히 評価된다。

다음은 京郷新聞의 記事를 転載해서 그의 壯한 業蹟을 宗親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이다(住所 : 서울·中区 太平路二街 三六一 근원빌딩 四〇二호 電話 : 二八一四八六六)。

無料변론 金泰亨 변호사

記録전시 韓国版기네스북

困境의 被告돕기 500여회

우리나라에서 무료변론을 가장 많이한 변호사는 서울 통합변호사회 소속 金泰亨씨(66)로 알려졌다.

金변호사가 지금까지 무료로 해준 변론은 5백회가 조금 넘는다.

이보다 더많이한 변호사가 없는것은 아니나 이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출마등 개인적인목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金변호사의 무료변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순수한 의도여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金변호사는 교육계에서 출발, 교육감까지 거친 드문 경력을 가지고있다.

그가 가장 잊지못하는 일은 지난 66년 충남논산군성동면 월북리 음성부락이 억울하게 앗게된 농토를 되찾아준 소송이다.

무려11년간 13번이나 재판을하는동안 金변호사는 사재를 거의 털어놓다시피했다.

주민들은 이때의 「고마움」을 기려 지난77년11월 부락에 송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金변호사는 밥달라는 아기를 목졸라 숨지게한 30대 어머니와 몸을 망쳐놓고 배신한 학원강사를 살해한 학원여학생의 변론을자청해 사회에 복귀시킨일도있다. 『어려운 사람을보면 도와줄수밖에 없는 성격때문에 이처럼 무료변론을 해왔다』는金변호사는「변호사 답지않게」가난한 생활을 하는것으로도 유명하다.

무료변론에 관한 세계기록은 아직 없으나 변호료를 가장 많이받은 변호사는 미국의 제리 가이슬러씨로 기네스북에 수록됐다.

가이슬러씨는 1건에 평균 5만달러씨의 변호료를 받았다. 〈燮〉

송덕비 제막식에서 인사하는 金변호사 (77년11월).

李朝科挙의 榜名解説

우리나라의 科挙制度가 처음 생긴 것은 新羅 元聖王 四年 (서기七八八年) 戊辰에 讀書出身科를 始初로 制定하였고 그 後로 高麗朝에서는 科挙制度로서 人材를 登用했으며 李朝에서도 高麗의 制度를 이어 받아 嚴格한 規則下에서 榜目을 세워서 科挙를 施行하였으나、이를 一一히 説明하기 보다는 우리 譜冊 一巻 二九九頁에서 三〇六頁에 실린바 있는 "登科榜目"中에「年榜」이나「科種」이 무엇인가?… 이러한 問題는 族譜에 関係없이 常識을 떠나 반듯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簡略하게 그 内容을 説明한다。

○式年試

式年이란 子·午·卯·酉의 地支가 들어간 해를 式年이라 하고、그 式年 마다 보이는 科挙의 榜名을 式年榜이라 하며 그 試験을『式年試』라 했는데 即 四年마다 定해진 科挙制度이다。

○式年殿試

式年마다 初試나 覆試의 合格者를 選抜해서 다시 国王의 親臨下에 보이는 試験으로『文科殿試』와『武科殿試』가 있었다。

○重 試

一段 科挙에 及第한 사람에게 다시 보이는 第二段階 試験으로서 이 重試에 合格하면 正三品의 品階에 陞進된다。

○別 試

別試는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에 보이든 臨時科挙로서 이 試験은 곧장 殿試까지 보는 制度로 서울에서만 限했다。

이 別試의 初試에서는 三百名에서 千名까지 뽑았기 때문에 合格者가 많았다。

○增廣試

나라의 慶事 때 보이는 榜目으로 式年試와 별다른 差異는 없었으나 때로 大增廣이라해서 合格者 指定数에 七名을 더해서 選抜할 때도 있었다。

○謁聖試

謁聖試는 謁聖科라고도 하며 国王이 文廟에 参拜할 때 成均舘에서 實施했으며『謁聖文科』와『謁聖武科』가 있었는데 이 試験은 當日 発表하였다。

○春塘試

春塘臺試라고도 하며 나라의 慶事 때나 또는 必要할때 施行하든 別試로서 昌德宮의 春塘臺에서 施行하였다。

○親耕別試

国王이 農事를 勧奬하기 위해서 親히 農耕을 하며 이를 紀念하기 위해서 보이든 別試를 말함이다。

○庭 試

나라의 慶事가 있을 때 보이기 때문에 慶科라고도 하며 이는 特히 殿庭에서 보았기 때문에 庭試라 했다。

이러한 科挙에서 壯元(首席) 合格者를 甲科 또는 槐科라 했고、다음을 亞元 或은 乙科 또는 榜眼이라 했는데、乙科는 때로는 二人이 될 때도 있었다。

그 나머지의 合格者는 丙科라 하며 丁科까지 있을 때도 있었다。

—◇消 息◇—

◇忠烈公 先祖 歲享은 11月 13日 午前 9時에 安東郡 禄轉面 竹松洞(陵洞) 墓庭에서 1百餘名의 後孫들로 하여금 嚴肅히 奉行하였다.

初献 喆源·亞献 性會·終献 浩甲·大祝 浩山·執禮 元榮

◇先祖妣 冷平国大夫人 竹州朴氏 歲享은 11月 14日에 安東郡 豊山邑 檜谷洞 壇所에서 40餘名의 後孫들로 하여금 嚴肅히 奉行하였다. 初献 思仁·亞献 相學·終献 馨會·大祝 文會

◇ 在仁川安東金氏 宗親会에서는 지난 11月 27日 午后 4時에 長安禮式場에서 1983年度 定期総会를 開催한바 70餘名 의 会員이 参席해서 予·決算에 対한 報告와 審議가 있었고 宗親会의 発展에 対한 討議를 眞摯하게 하였다.

◇提学公派의 都事公(諱 彦弘) 後孫들은 지난 11月에 釜山에서『都徳奨学委員会』를 構成하고 有志로 하여금 基金을 出資하여 後孫中에서 秀才를 選抜해서 学資金을 도우기로하였다

会長 相學, 副会長 相宜, 相弼, 相台, 在應, 俊会

◇都評議公派의 熙東 君은 23歲의 弱冠으로 高等考試 司法科를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하는 榮譽를 얻었다.

◇忠北 鎭川郡内의 安東金氏 宗親 80餘名은 農協 単位組合 会議室에서 鎭川郡 宗親会 創立総会를 開催하여 会則과 予算等을 審議하고 任員을 選出하였다.

회 장 : 사영

부회장 : 용묵 · 영조

감 사 : 호영 · 재득

◇大宗会 会長 明会 博士께서는 11月 26日에 서울·鍾路区 平倉洞 올림삐아 호텔에서 回甲을 紀念하는 論文発表会를 가졌다.

◇大宗会 理事이며 현재 大宗会에서 勤務하는 翼元公 派 尚会氏의 三男 哲洙 君은 지난 12月 21日에 実施한 大韓 美術展覧会東洋画(四君子)部門에서 出品된 300여点의 競争을 물리치고 당당 大賞을 獲得하였고 그 作品은 本人의 意思에 따라 安東 陵洞의 忠烈公 先祖 影幀閣에 奉献키로 하였다. (5頁 사진 参照)

大宗會 副会長 相均博士 逝去

大宗会 副会長이시며 壽山醫院 院長이신 提学公派 相均 博士께서는 一年餘의 闘病中 지난 十一月 二十一日 午前 二時 二十六分 서울阿峴洞 一二七번지 自宅에서 享年 六十二歳로 逝去하였다。

相均 博士께서는 一九二二年(壬戌)生으로 忠南 天原郡 並川面 佳田里 에서 前日에 内務部 理事官을 지내신 東浩氏의 長男으로서 서기一九四三年에 京城醫学專門学校(現 서울大学校醫科大学)을 卒業하였고 一九四七年에는 서울 麻浦区 阿峴洞 一二七번지에 壽山医院을 自營했으며 一九六一年 에는 日本 東京医科大学에서 博士論文이通過되어 医学博士 学位를 授與 받았고 麻浦区 医士会 会長과 서울 라이온스 委員長 等을 歴任하면서 社会事業에寄与한 功労 또한 至大하였다。

一九六八年 九月에는 大宗会 創立籌備委員의 一員으로서 活躍했고 一九七五年度 定期総会에서 副会長으로 選任되어 満九年間 大宗会 事業에 誠心과 誠意를 다했다。遺家族으로는 未亡人 洪淳愛 女史와 아들 南應(醫師 : 在美)과 免應(醫師·카톨릭醫大病院) 그 밖에 많은 孫子들이 있다。

大宗会의 発展을 위해 物心両面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賛助人名単

五万원	按廉使公派	在鶴(乙支路)
貳万원	翼元公〃	振台(盤浦)
拾万원	翼元公〃	榮會(清凉里)
参万원	都評議公〃	鳳會(釜山)
弍万원	翼元公〃	道甲(踏十里)
壱万원	按廉使公〃	泰順(清州)
拾万원	翼元公〃	明會(會長)
参万원		清州宗親会
拾万원	提学公〃	相敦(天原)
弍万원	開城尹公〃	容郁(平昌)
弍万원	翼元公〃	東會(城南)
弍万원	郡事公〃	在錫(坡州)
弍万원	按廉使公〃	永會(長位洞)
弍万원	按廉使公〃	章會(清原)

(以上総会時)

壱万원	按廉使公〃	崙會(忘憂洞)
壱万원	按廉使公〃	卿辰(徽慶洞)
壱万원	都評議公〃	元榮(徽慶洞)
壱万원	大司成公〃	喆會(鷺梁津)
壱万원	翼元公〃	喆會(孔陵洞)
参万원	正儀公〃	在湧(上溪洞)
五万원	翼元公〃	振台(盤浦)
参万원	副使公〃	在福(釜山)
参万원	按廉使公〃	在煥(仁川)
弍万원	提学公〃	星會(仁川)
六万원	按廉使公〃	國寶(開峰洞)
壱万원	開城尹公〃	履範(杏堂洞)
壱万원	大司成公〃	明會(清凉里)
壱万원	提学公〃	相熉(阿峴洞)
参万원	按廉使公〃	昌會(禿山洞)
壱万원	郡事公〃	載鴻(中和洞)
参万원	郡事公〃	元鏞(禾谷洞)
壱万원	典書公〃	在文(内鉢山洞)
壱万원	大護軍公〃	在均(踏十里)
壱万원	書雲觀正公〃	學永(老姑山洞)
壱万원	密直使公〃	在沼(新林洞)
弍万원	按廉使公〃	鳳演(會坪)
弍万원	按廉使公〃	斗會(禿山洞)
六万원	按廉使公〃	在均(汝矣島)
壱万원	翼元公〃	榮俊(富川)
五万원	翼元公〃	以會(九老洞)
参万원	翼元公〃	道甲(踏十里)
五万원	翼元公〃	象默(高陽)
弍万원	都評議公〃	昌信(忠正路)
五千원	提学公〃	相學(釜山)
五千원	提学公〃	相宜(釜山)
칼라TV (壱台)	翼元公〃	仁會(文來洞)
拾万원	開城尹公派	賢潤(新設洞)

(以上 会報発刊을 위한 賛助金)

契学基金 出捐者 名単

壱百万원	翼元公派	仁會(文來洞)
壱百万원	開城尹公〃	賢潤(新設洞)
参万원	翼元公派	雄壽(安岩洞)

風濤 (3)

井上靖著
金崙會譯

—그대의 나라의 권신(權臣)이 자기 마음대로 왕(王)을 폐립(廢立)함으로써, 특히 몽고국왕(國王) 도렌카 등을 파견하여 중서성(中書省)이 일을 행(行)하고, 군사를 이끌고 동하(東下)시켜 그대의 나라를무마 평정코자 한다. 다만 수뇌자(首惱者)에 한하여 이것을문책하고, 기타의 이민(吏民)들은 한 사람도 연좌하지 않을것이니, 오직 그대의 백성들은전부 자기들의 일에 임하여 전과같이 안거낙업(安居樂業)하도록 하여라。

이장용이 가장 두려워 하던 일이 조서(詔書)에 기록되어 있었다. 고려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여, 몽고는 지금 자기들의 군사력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군사를 이끌고 동하(東下)시킨다"는 것은, 몽고가 자기에 의하여 출병하려고 하는 이유를 소멸(消滅)시키는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었다。그것은 원종을 복위(復位)시키는 일이었다。

이장용은 몽고의 조사(詔使) 혀덕(赫德)으로부터 임연(林衍에게 왕위(王位)를 다시 원종에게 복위(復位)할 것을 권하고 싶어 하였다。

임연은 점점 자기의 입장이 곤란(困難)해지는 것을 초조하게 생각하고 몽고군의 출동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입장이 구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따라서 임연은 누구보다도 몽사(蒙使) 혀덕(赫德)의 조언을 가장 올바르게 들을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임연도 당연히 사태를 이렇게한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체면도 있는 일로서, 자기 주위 사람으로 부터 원종 복위의 말을 꺼내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려고 할 것은 분명하였다。

이장용은 언제든지 강도에 오는 몽사(蒙使)가 유숙하게 되어 있는 궁성내의 객관(客館)에 혀덕(赫德)을 방문하였다。혀덕이 처음 일본에 갈 사절(使節)로서 강도를 출발했을 때에 이장용은 글을 혀덕에게 바쳤는데, 그후 큼직하고 비만한 체구에 작은 일에는 별로 구애하지 않을 것 같은 관대한 풍채를 지니고 있는 이 인물에, 특수한 친근감을 품기고 있었다。혀덕은 말하자면 세조의 의지(意志)를 반대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문책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일체 그러한 기미도 없고, 가끔 사자로서 고려에 왔다가, 다시 견일사(遣日使)로 뽑혀, 누구의 눈에도 어딘가 그 신분을 알수 없는 인물로 비쳤다。혀덕은 무슨 까닭인지, 언제든지 고려가 궁지에 빠져 있을 때만 강도에 모습을 나타냈다。강도에 오는 몽고인 중에서는 혀덕이가 제일 고려의 국내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이장용은 혀덕에게 자기의 방문한 용건을 이야기하고, 고려가 당면하고 있는 난국을 뚫고 나가는데 한번 도와줄수 없느냐고 말하였다。혀덕은 잠깐 생각하고 있다가, 곧 그것을승낙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하고, 그 일은 그것으로서 끝난것 같이 하고 곧 이야기를 딴 화제로 옮겼다。자기는 몽고인이기 때문에 고려인의 사람 성격을 그 모습과 행동으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그 나라를 알고, 그 국민 성격의 대요(大要)를 알은 다음에 판단할수 있는 것이다。

「동북면(東北面—함경도) 사람의 성격은 이전투구(泥田鬪狗—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같고, 서북면(西北面—평안도)사람의 성격은 맹호출림(猛虎出林—사나운 호랑이가 숲 속에서 뛰어 나오는것)같고, 교주도(交州道—강원도) 사람의 성격은 암하석불(巖下石佛—바위 아래 돌 부처) 같고, 서해도(西海道—황해도) 사람의 성격은 석전경우(石田耕牛—돌밭을 가는 소) 같고, 경기도(京畿道) 사람의 성격은 경중미인(鏡中美人—거울 속의 미인) 같고, 충청도(忠淸道) 사람의 성격은 청풍명월(淸風明月—맑은 바람에 밝은 달) 같고, 경상도(慶尙道) 사람의 성격은 태산교악(泰山喬岳—큰 산이 준엄한 메뿌리)같고, 전라도(全羅道) 사람의 성격은 세류춘풍(細柳春風—수양버들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 같다。

—전번에 주살(誅殺)된 김준은 서해도(西海道) 출신으로서, 그의 일생은 돌밭을 가는 소와 같았다。임연은 서북면(西北面)의 출신으로서, 사나운 호랑이가 숲 속에서 뛰어 나오듯이, 김준을 죽이고, 왕(王)의 폐립을 자행하였다。김방경(金方慶)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정말로 태산교악(泰山喬岳)과 같이 준엄하고 과묵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주석(柱石)이 될만한 훌륭한 인물이다。재상(宰相)은 경기도 출신으로서 과연 경중(鏡中)의 미인(美人) 같소」

그렇게 말하고 혀덕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다소 상대방에 연막을 치는것 같았으나, 이장용에게는 혀덕이란 인물이 그다지 만만치 않은 인간으로 보였다。고려인을 보는 눈이 예민하고, 보는데 까지는 빈틈없이 보는 느낌이었다。이장용은 자기를, "경중미인(鏡中美人)"이라고 말하였지만은 아마 그 뜻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힘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뿐만 아니라 임연의 왕(王) 폐립(廢立)사건에 있어, 이장용이 맡고 있던 역할(役割)을 비유해서 말한것이 틀림 없었다。지금에와서, 원종 복위의 문제를 자기에게 까지 가지고 올 정도라면, 왜 임연(林衍)이 사건을 일으킨 당초에 임연을 치지 않았는가, 그러한 일을 말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로 나의 성격이 본래 경중의 미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장용은 그렇게 말하였다。

「원종 복위 때는, 곧 바로노구(老軀)를 이끌고 몽고에 들어가서, 세조를 알현(謁見)하고, 국운(國運)의 타개를 도모코자 합니다。이미 부르심을 받고있는 까닭에 불원간 원종께서도 입조(入朝)하시겠지만은 그때는 자기도 태산교악(泰山喬岳)의 김방경(金方慶)도 있지않을 것이오니, 모든 것을 잘 부탁하오。」

그렇게 혀덕(赫德)에게 부탁하였다。혀덕의 권고가 주효(奏效)되었는지, 임연이 마침내 창(昌)을 왕위(王位)에서 내리고, 다시 원종을 복위(復位)시킨 것은 十一월 二十三일이었다。그로부터 四일후인 二十七일에 원종의 복위(復位)와 그의 입조를 세조에 아뢰는 사명(使命)을 띠고 이장용은 강도를 출발하였다。원종은 복위(復位)하자 바로 강도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의 입조는 아무리 빨라도 十二월 중순(中旬)을 지날것으로 생각되었다。이장용으로서는 세번째의 몽고입조이고 지금까지의 두번 갔을 때 보다도, 그가 띠고 가는 사명은 일층더 중대하였다。세조 후비라이에 국내가 평온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아뢰고, 그의 조서(詔書)에 있는 도렌카 군(軍)의 동하(東下) 입국(入國)을 저지(阻止)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요는 하루 속히 세조를 알현(謁見)하고, 출동 명령을 취하(取下)하여줄 것을 바라는 것이었다。

이장용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여행(旅行)을 계속 하였다。국토(國土)를 북상(北上)한지 얼마되지 않아, 노재상(老宰相)은 나라의 북부 지경(地境)에서 거의 믿을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서북면 병마사(西北面 兵馬使)의 기관(記官)인 최탄(崔坦)이란 자가 임연(林衍)을 주살(誅殺)하겠다는 것을 이유 삼아 난(亂)을 조작하였다는 소문이 강도에 전(伝)하여졌다。최탄(崔坦)은 삼화현(三和縣)의 이연령(李延齡)이란 자와 밀의(密議)하고 용강(龍崗) 함종(咸從) 삼화(三和), 제현(諸縣)의 백성들을 일으켜, 순식간에 일대세력(一大勢力)을 형성하여, 함종현령(咸從縣令)을 죽이고 대동강구(大同江口)에 가까운 단도(椵島)의 유수사(由守司)의 관리(官吏)를 쫓아내고 다시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잡아 죽였다。그리고 일로북상(一路北上)하여, 용주(龍州), 영주(靈州), 철주(鐵州), 의주(宜州), 자주(慈州) 등의 서북면(西北面)의 여러 성(城)의 장관(長官)들을 죽이고, 그후 자취를 감춰버리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불쾌(不快)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최탄(崔坦)은 처음에 강도(江都)의 진공을 선포(宣布)했는데 그것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명목(名目)인듯 하였고, 강도에 진공할 기세는 그 동정(動靜)으로 보이지 않았다。다만 이것만으로서의 반란사건(叛亂事件)이라면, 이장용은 놀라지는 않았다。물론 강도에서도 그것을 진압할 부대는 보냈지만은, 그후 최탄(崔坦)이 어디서인지 숨을 죽이고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태여서, 강도에서는 이 북방문제를 단순한 소요사건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최탄(崔坦)의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서경(西京—平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장용은 농촌이 이르는 곳마다, 고려의 백성들을 도탄(塗炭)의 고통속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불원간 제왕(帝王)의 군대가 올것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것을 보았다。성군(聖軍)이 곧 온다。몽병 三천명이 불일간 국경을 넘는다。천제(天帝)의 명(命)을 받아 三천의 구세군이 목하(目下) 압록강반(鴨綠江畔)에 도달—등등 써 있는 문구(文句)는 잡다(雜多)하였는데, 그 문구의 의미는 한결같이 용이(容易)하지는 않았다。혀덕(赫德)이 지참한 세조 후비라이의 조서(詔書)에 국왕(國王) 도렌카가 군사를 이끌고 동하(東下)하여 고려국을 무마 평정하라는 문구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마 위협적인 것이고, 현재의 단계로서는 몽고군의 입국에는 아직 시일이 있을것으로서, 이장용 자신이 그의 출동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취하(取下)를 얻기 위하여 지금 연도(燕都)를 향하여 급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러한 때에, 이와 같은 포고(布告)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몽고에 내통하여, 그의 입국을 환영하는 세력이 이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것은 말할나위도 없이 최탄(崔坦)과 그의 일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장용은 생후에 이와같이 놀란 일은 처음이었다。최탄이 난(亂)을 일으킨 것은 10월초이고, 그로부터 그의 소식이 끊어진이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二개월 가까이 날짜가 소비되었다。그간에 이 지방의 반란자(叛亂者)는 무엇을 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서경을 지나서, 나중에는 압록강반(鴨綠江畔)까지, 어느 부락도 마찬가지의 벽보가 붙어 있었고, 고려의 지방수비병(地方守備兵)의 모습도 없는가 하면, 최탄(崔坦)의 일당으로 생각되는 군대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도읍(都邑)도, 부락(部落)도, 거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겨울을 눈 앞에 두고, 주민들은 겨우살이 준비에 분주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淸堂解氣
生嘉祥
金思達

서울·九老第1地区再開發組合長
安東金氏大宗會理事
金以會
住所：서울·九老区 九老6洞 315(3統2班)
電話：(自) 855－2093

安東金氏大宗会 理事
金·銀宝石商
金湧信
木浦市 南橋洞 八四—七 五統三班
電話：二—三五○二

그러나 반란은 확대일로에 있었고 남도 출신의 수령들은 모조리 살해 되었다。이시애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 하나 그 중에는 각 진영의 정규군인도 있었고 또 여진족의 증원도 있어서 한때 관군은 곤경에 빠져 남도에서 증병을 해서 관군을 돕게하여 북청(北青)의 만령(蔓嶺)에서 반란군을 격퇴하자 이시애는 경성(境城)을 퇴각하였으나 그들의 당인 이주(李珠) 이운로(李雲露)등에게 살해되고 그의 아우 이시합도 동시에 살해되었다。이 사건은 三개월이나 계속되었고 이때 길주를 길성현(吉城縣)으로 강등(降等)시키고、이에 연류된 관계자들이 먼 곳으로 유배되었고 一四六八년(宣祖十三)에는 一등 十명、二등 二十三명、三등 十二명의 功臣을 책훈(策勳)하였다。

功臣論 小考 (2)

⊙익대공신(翊戴功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신을 말한다。

남이는 의산군(宜山君) 남휘(暉)의 아들이며 태종(太宗)의 외손이고 좌의정 권람(權擥)의 사위이다。一四五七년에는 十七세의 나이로 무과에 장원급제 하여 세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뿐만이 아니고 一四六七년에 있었던 이시애의 난에는 우대장(右大將)으로 공을세워 적개공신 一등에 오르고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다。이어서 서북면(西北面)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고 二十七세에 병조판서가 되었다。변邊

一四六八년에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睿宗)이 즉위하자 류자광(柳子光)의 일당이 예종의 뜻을 받아 모함으로 남이를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던 중、예종이 즉위하고 얼마 되어 혜성(彗星)이 떨어졌는데 어느날 밤 금중(禁中)에서 숙직하고 있던 남이(南怡)가「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을 류자광이 듣고 이 말을 돌려쳐서 남이가 역모를 꾸민다고 예종에게 모함했다。예종은 이를 기화로 남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때 강순(康純)·조경치(曹敬治)·변영수(卞永壽)·변자의(卞自義)·문효량(文孝良)·고복로(高福老)·오치권(吳致權)·박자하(朴自河)등 많은 인사가 처형되었다。그러나 남 이는 一八一八년(純祖一八)에 신원 되어 관작이 복구되고 충무공(忠武公)의 시호를 받게 되었다。

이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신은 四十명인데 一등 五명、二등 十一명、三등 二十四명이다。

⊙좌리공신(佐理功臣)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는 맏아들 도원군(桃源君)이 세자로 책봉되었으나、두 아들(月山大君과 成宗)을 낳고 횡사(橫死)함으로서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둘째 아들 예종(睿宗)이 十四세에 즉위하였으나 十三개월만에 승하하게 되니 도원군의 아들 자산군(煮山君)이 十三세로 왕위를 계승할 것을 명하였다。그리하여 정희대비는 七년간이나 습정을하게 되었는데 一七四一년에 성종을 추대한 신하들에게 (임금을 잘 보필 하고 정치를 잘 했다)는 명목으로 七十四명의 공신을 책훈하게 되었는데 一등 九명、二등 十一명、三등 十八명、四등 三十六명이었다。

⊙정국공신(靖国功臣)

정국공신은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공을 세운 훈호(勳號)이다。

一四九四년에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燕山君)이 즉위하니 제4대 왕이다。연산군은 성종의 폐비 윤씨(廢妃尹氏)의 소생으로 즉위해서 다소의 치적은 있었으나 날이 감에 따라그 어머니 윤씨가 대궐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당한 후로 외롭게 지내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향락과 횡포를 일삼아 많은 실정을 하였다。一四九八년의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이어 一五〇四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를 일으켜 사림들을 대량으로 숙청했고 그 후에는 언문구결(諺文口訣)을 태우고 원각사에 장악원(掌楽院)을 설치하여 기녀(妓女)를 양성하며 성균관(成均館)을 유흥장으로 삼았고 사간원(司諫院)의 기능을 중지케 하고 경연(經筵)을 폐지하고 종래에는 채청사(採青使)와 채홍사(採紅使)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미녀(美女)와 양마(良馬)를 징발하면서 국고를 탕진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성이 높아지자 이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은 지 중추부사 박원종(朴元宗)과 밀약하고、이조판서 류순정(柳順汀)의 도움을 받아 一五〇六년 九월에 왕이 장단(長端)으로 유람 가는 틈을 타서 성종의 둘째아들 진성대군(晋城大君)을 추대할 계획을 세웠으나 행차가 중지되어 계획이 좌절되었다。때마침 호남(湖南)의 류 빈(柳濱)과 이 과(李顆) 등이 진성대군 옹립의 격문을 보내 온 기회를 타서 훈련원 장사(壯士)를 모아 광화문 (光化門)밖에 있는 왕비 신씨(愼氏)의 친정 백남(伯男)인 신 수근(愼守勤)과 신수영(愼守英) 등을 살해하여 왕실의 측근을 없앤 다음 성희안은 백관을 거느리고 궁중으로 들어가 성종의 계비(繼妃)인 윤대비의 하명을 받아 연산군은 교동(喬洞)으로 안치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니 즉 인조(仁祖)이며 이 사건을 인조반정(仁祖反正)이라 한다。이에 공신 백五명을 책훈했는데 一등 八명、二등 十三명、三등 三十명、四등 五十四명이었으나 一五一九년(中宗一四)에 조광조(趙光祖)등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이 이는 너무 난발(濫発)한 일이라고 상소하여 그중 七十六명이 삭훈(削勳)됨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불씨가 되었다。

⊙위사공신(衛社功臣)

윤임(尹任) 류관(柳灌) 유인숙(柳仁淑)을 제거한 을사사화(乙巳士禍)의 공신호이다。을사사화는 척신(戚臣)인 대윤파(大尹派)의 윤임(尹任)과 소윤(小尹)의 윤원형(尹元衡)간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림의 화옥사건(禍獄事件)으로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낸 사건이다。

중종은 첫째 계비(繼妃)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에서 인종(仁宗)을、둘째 계비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에서 명종(明宗)을 낳았는데、중종이 승하하고 인종(仁宗)이 즉위하자 장경왕후의 동생인 윤임(尹任)이 득세하여 회제 이언적(晦齋 李彦迪)같은 사림의 명사들을 기용해서 기세를 떨쳤다。그러나、인종은 재위 八개월 만에、승하하자 十二세의 명종(明宗)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되니 문정왕후의 동생、윤원형이 득세하여 대윤의 일파를 몰아내고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 중추부사 정순명 등과 공모해서、형조판서 윤임(尹任)、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영의정 류관(柳權) 등 十여명을 역모죄로 몰아 귀양 보냈다가 죽이고 소윤의 세력을 굳혔다。이 때 공신 二十三명을 책훈했는데 一등 四名、二등 八名、三등 四名、四등 七명이었는데 이를 보익공신(保翼功臣)이라고도 하였으나 후일에 모두 공신호를 삭탈 당했다。

⊙광국공신(光國功臣)

종계변무(宗系辨誣)로 공을 세운 공신들을 포상한 공신호이다。

명나라 조정에서 간행한『태조실록(太祖實録)』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다。이 일로 조선에서는 국초(國初)부터 말썽이 있어 여러 차례로 주청사(奏請使)를 보냈으나『태조실록』은 고칠 수 없다는 구실로 번번히 거절 당했다。

一五八四년(宣祖十七)에 다시 황정욱(黄廷彧)을 정사(正使)로 한 주청사 일행을 보내서 마침내 二백八十년간 애써 온 종계(宗系)를 바로 고칠 수 있었으며 三년 후인 一五八七년에는 유 홍(劉泓)이 명나라에 가서 직접『대명회전』을 가지고 왔으며 이 때 국왕이 직접 모화관(慕華館)까지 나가서 명나라 칙사(勅使)를 맞이하고 종묘(宗廟)에 종계개정(宗系改正)을 고하였다。또 이에 관계한 백관(百官)에게 가자(加資)를 내리고 모든 죄인에게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그리고 一五九五년에는 공신 十九명을 책훈했으니 一등 三명、二등 七명、三등 九명이었다。

⊙평란공신(平難功臣)

정여립(鄭汝立)의 역모를 고변(告變)하고 또 이를 진압한 공신을 말한다。정여립은 전주(全州) 사람으로서 두뇌가 명석하고 경사(經史)에 능통하며 통솔력도 있었으나 성격이 잔인하고 아부성이 있었다。그는 문과에 급제해서 율곡 이이(栗谷 李珥)와 우계 성 혼(牛溪·成渾)의 문하에서 총애를 받았으며 따라서 벼슬도 승진이 빨라서 예조좌랑을 지내고 수찬(修撰)때 사퇴하였다。정여립은 원래 서인(西人)이었으나 동인(東人)이 집권하자、다시 수찬이 되어 동인에 아부하면서 스승을 배반하고 비난하므로、왕이 불쾌하게 여기자 다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향에서는 많은 선비와 접촉하고 명성이 높아지자 이제는 정권을 잡겠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을 조직하여 신분의 차별을 두지않고 선비와 불평객들을 모아 무술 훈련을 시키면서 一五八七년에는 전주부윤(全州府尹) 남 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변경에서 일어난 왜변(倭變)을 방어함으로 대동계의 조직은 더욱 확대되며 해주(海州)의 지함두(池涵斗)、운봉(雲峰)의 중 의연(義衍)、안악(安岳)의 변 숭복(邊崇福)등을 농지로、또 모사로 삼아 정감록(鄭鑑録)의 비결과 조작한 "이씨(李氏)는 망하고 이제부터 정씨(鄭氏)의 시대가 온다"고 민심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차차 소문이 퍼지자 거사를 앞당겨 一五八九년 겨울에 한강의 결빙(結氷)을 이용、황해도와 호남에서 동시에 입경(入京)하여 신 립(申粒)장군과 병조판서를 살해하고 병권을 잡을 것을 결정하였다。그러나 안악군수(安岳郡守)이 축(李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변하여 관련자들이 잡히게 되자 정여립은 진안의 죽도로 피신했으나 관군에게 포위되며 자살하였다。이 사건 때문에 동인이 박해를 받게 되고 인해서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일어났으면 전라도를 반역향(叛逆鄕)으로 취급되어 호남인(湖南人)의 등용이 제한되었다。

이 편란공신은 二十二명인데 一등 三명、二등 十二명、三등 七명이다。 〈다음 호에 계속〉

(元榮 記)

印章 複写 各種印刷

太古堂

代表 金 榮 穆

서울：中区 北倉洞 18－5 (프라자호텔뒤)
電話：28-8414 自 792-2988

금메달의 집

서울양복점

在仁安東金氏宗親会 代表 副会長 金 漳 會

仁川直轄市 中区 京洞(싸리재)
조흥은행옆

電話：72—8447

傳說

狐女와 如意棒

고려 충렬왕(忠烈王) 七년‖ 서기 一二八一:辛巳‖十月七日 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고려 군 도원수 김 방경(金方慶)장군 은 원(元) 나라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고 숭문관(崇文館)에 좌성하여 만부장(萬夫長)과 천 부장(千夫長)을 임명하고 차례 로 하례(賀禮)를 받았다.

다음 해 三월 十六日에는 다 시 숭문관에서 대오(隊伍)를 정 비하고 도원수기(旗) 앞에서 마 독(禡纛)을 거행하여 승리를 기 원하였다. 이어서 승제문(承制門)을 지내니 이미 개경(開京) 을 떠났고 지나간 갑술년에 여 원 연합군(麗·元聯合軍)이 일 본(日本) 정벌을 할 때 간곳마 다 승리를 거두었으나 억센 태 풍을 만나, 불의의 피해를 입 고 회군한지 실로 七년만의 일 이라서 패기찬 장졸들은 각처 에 집합해서 도원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방경 장군은 용뇌(龍脳) 의 교외(郊外)에서 노숙(露宿) 하고는 남(南)쪽을 향해 내려 가면서 구름 같이 모여있는 사 졸들을 대오에 편입 시키니 그 기세는 태산을 격파하고도 남 음이 있는듯 했다.

지나가는 촌락(村落)에는 살 구 꽃이 화사한 빛을 띠고 담 위에서 시간을 고하는 닭 소리 는 평화롭기만 하나 거리에서 말없이 바라보는 아녀자나, 노 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모르 게 우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부대를 완 전히 편입시킨 대군단은 충주 를 지내서 연풍(延豊) 고을에 당도하니 여기서 부터는 사방 이 높은 산에 둘러싸인 험준한 오솔 길을 걸어야 하고 대열의 선후는 수십리에 뻗쳐 있었다.

연풍에서 노숙한 군단은 동 이 트기도 전에 새재(鳥嶺)의 정상을 향해 행군을 하는데, 산 은 갈수록 험악하고 길은 자꾸 만 좁아져 가며 이곳 저곳에서 는 이름모를 산 짐승들이 놀래 서 도망친다. 골짜기 마다 피어 오르는 안개 속에는 일찍 핀 진 달래의 꽃봉우리가 아련하게 보 이고, 방울 맺힌 풀잎의 이슬 이 군복을 여지 없이 적셔준다.

새재의 정상에 군단의 선봉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안개도 걷 히고 태양은 중천에 올라 온화 한 볕을 쏟아 주고 만산의 진달 래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겨루 는듯 향기를 뿜고 있었다.

이윽고 도원수의 거창한 모 습이 나타났다. 八척 거구(巨軀)를 주갑(胄甲)으로 감싸고, 몽고 호마(蒙古胡馬)의 등을 탄 용태(勇態)는 천하를 제압하고 도 남음이 있어 보였다.

김 방경 장군은 전군에게 휴 식의 영(令)을 내리려 하였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이상 한 일이 생겼다.

별안간에 말의 발굽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그 뿐 아니라 전군의 발이 땅에서 떨 어지지 않았다. 말은 사방으로 고개를 흔들 뿐, 소리를 치지 못하고 사람의 목에서는 아무 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 한 여인의 울부짐…… 그 소리 는 가까이서 들리다가도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들리었다.

「장군님!! 장군님은 이 길을 거두옵소서……장군님! 부 디 가시지 마옵소서……」

그 목소리는 분명히 五십년 전에 몽운사(夢雲寺)에서 들은 여우 화신(化身)의 그 음성 (音聲) 그대로 였다.

「장군님!! 가지마소서……」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는 여 전히 들리는데 장군은 안간힘 을 다 써 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장군은 허리에 차고 있는 여 의봉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전 신의 힘을 상채(上体)로 모아 소리치니 드디어 그 소리는 산 천을 울리고 건너 산에서 메아 리 쳤다.

「애라!! 이 요만한 것 같으니 라구……」국가의 존망을 걸고 장도로 떠나는 대장부의 길 에 네 같은 미물이 왜 나타났 느냐? 썩 물러 가라……」

그러나 여인의 목소리는 그 치지 않는다.

「장군님! 이번 길을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천기(天機)의 유동(流動)을 그 여의봉이 어 떻게 막을 수 있겠읍니까? 장군님은 이 미물의 말이라 도 제발 좀 믿어 주옵소서」

김 방경 장군은 말없이 듣고 만 있었다.

「장군님! 이 미물은 그래도 장군님의 은혜를 잊지않고 소중한 여의봉을 장군님께 바 친후로 낮이면 어두운 굴속 에서 지내고 밤이면 먹이를 구하고져 온 산천을 헤맨지 도 五십년이 되었읍니다. 그 러나 장군님의 이번 장도는 절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장군님의 신변에 위험이 다 가 오는데 이 미물의 짐승이 라고 해서 어찌 아연히 앉아 있으오리까. 그래서 야음(夜陰)을 타고 이곳까지 와서 기다렸사오니 부디 행군을 거두시옵소서」

「알았노라, 그러나 이 길은 꼭 가야하는 길…… 너는 걱 정 말고 돌아가라」

벽력같은 장군의 호령에 여 인은 다만 흐느껴 울 뿐 말을 하지 못 하였다.

「자! 가자!!」

장군은 진군의 명령을 내렸 다. 그제서야 전군의 발이 떨 어지고, 영문을 모르는 장졸의 행군은 계속되었는데 그 여인 의 울음 소리는 그대로 들리고 있었다.

× × ×

새재를 넘으니 문경(聞慶)의 넓은 평야가 전개되고 이미 도 착한 선발대(先發隊)는 그 곳 수령(守令)으로 부터 공급받은 군량미(軍糧米)로 오료(午料) 의 준비에 한창이었다.

문경 벌, 넓은 들판에서 전 군은 휴식에 들어갔다. 그 한가 운데 도원수의 깃발이 펄렁거 리고 그 밑에서 김 방경장군은 머리를 옛날로 돌리면서 허리 에 찬 여의봉을 더듬어 보았다.

어린 소년 시절에 몽운사에서 괴변을 일으키던 그 여우에게 받은 여의봉… 그후 五십년이 지내도록 밤, 낮을 같이한 이 여의봉… 장군은 눈을 지긋이 감고 이 여의봉과 같이 운명을 걸고 지내온 역사를 돌이켜 생 각해 볼 때, 이 여의봉이야 말 로 장군의 신변을 지켜 왔고 그 것이 또한 나라를 지킨 일이라 고 생각할 때,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김 방경 장군이 이 여의봉으 로 말미암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뜻대로 풀어 간 사실은 헤아릴 수 없었다. 그중 에서도 진도(珍島)에서 삼별초 (三別抄)를 토벌할 때나, 탐라 의 토역(討賊)에서 밤중에 풍 랑에 몰려 사방을 분간할수 없 을 때도 이 여의봉의 힘을 빌 려서 계획대로 성전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의봉의 주인인 여우가 어찌해서 이번 장도 (壯途)를 저렇게 애절하게 막고 있을까?

장군은 이러한 잡념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군 은, 이 모두를 사사망상 으로 돌리고 다시 행군의 호령을 내 렸다.

× × ×

문경을 떠난 동정(東征)의 대 군단은 드디어 합포(合浦‖金海)에 도착해서 병선(兵船) 과 모든 무기를 수리 점검하고 원나라의 흔도(忻篤)와 홍다구 (洪茶丘)가 인솔하는 십만대군 과 합류하여 五월 초성에 대마 도(對馬島)로 향하였고, 이어서 일기(一岐), 대명(大明) 등 여 러 섬에서 적(敵)을격살, 다시 하까다(博多)와 시가도(志賀島) 에 이르러서는 수 없이 적을진 격해서 물에 빠져 죽은 자의수 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으나 二십여일이 지나고 부터는 왜 인(倭人)들이 병선(兵船) 으로 대적 해 와서 큰 접전이 벌어 졌으나 모두 크게 이겼다.

이 때 원나라에 정복 당한 송 (宋)나라 장수 범문호(苑文虎) 가 십만 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함께 일본 본토에 상륙(上陸)할 계획이었으나 범 문호의 군사가 한달이 넘도록 도착 하 지 않아서 싸움은 소강상태로 지냈는데 七月 그믐께 송군(宋軍)이 도착되어 합동으로 작전 의 계획을 세우고 일제히 상륙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八월 一일 밤에 큰 바람(颱風)이 불어와서 원나라 배와, 송나라 배의 절반이 부 서지고 또는 침몰했으며 어디 론가 행방 불명된 수도 상당히 많아서 할 수 없이 회군(回軍)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방경 장군은 배가 부서져 서 육지에 있는 군사들을 병기 (兵器)와 군마(軍馬)를 모두 배리게 하고 남은 배에 나누어 태워서 회군 할 때, 여러날의 피로에 지쳐 뱃전을 의지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이 때 꿈에 한 여인이 나타 났는데 그는 분명히 五십년 전 에 안동의 몽운사에서 만난 여 우의 화신이었다.

「장군님! 이제 장군님이 하 실 일은 다 하셨읍니다. 그 방망이는 제 에게로 돌려 주 십시요. 네, 장군님!!」

김 방경 장군은 아무 말없이 허리에서 여의봉을 풀어 여인 에게 넘겨주고 깨니 한낮 꿈이 었다.

꿈에 놀래 깬 장군은 허리에 차여진 여의봉 쪽으로 손이 갔 다. 그러나 여의봉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번째 일본 정벌에서 돌아 온 김 방경 장군은 다음해 七 월에 왕에게 퇴직할 뜻을 표하 는 글을 올리니 왕이 이를 허 락하고 추충 정란 정원 공신삼 중대광 첨의중찬 판 전리사 사 세자사(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를 추서 하였고 다시 상락군 개국공 식읍 一천호(上洛郡 開國公 食邑一千戶)에 식실봉 三 백호(食實封三百戶)를 봉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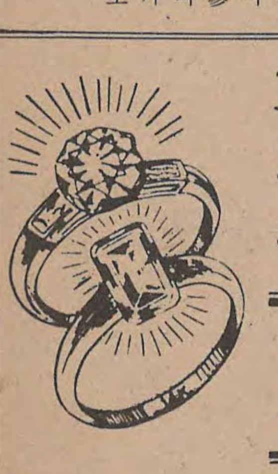
(一頁에서 계속)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勿溪書院은 忠烈公 先祖를 主壁으로 大司成公 金九容 과 虛白堂 金揚震、鶴沙 金應祖 (虛白堂과 鶴沙는 豊山金氏)를 配享한 書院으로 嶺南儒林에서 祀享를 올렸으나 高宗八年 (一八七一)에 大院君의 書院毁撤令에 依해서 撤廢된 후 百余 年이 넘도록 復元하지 못하고 있으며, 濟州島에 政策上 으로 建立된 抗蒙殉義碑의 撤去問題 等 時急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일들이 말 만으 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經濟問題가 隨伴되기에 会長이 나 常務의 힘만으로 될수 없고 無小無大、물처럼 뭉쳐야 大業 이 成就될 것이다.

世稱 安東金氏는 兩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果然 兩班인가? 우리 祖上님들은 분명히 兩班 이다. 箕子는 『竭力從事君親曰兩이오 盡心切志忠孝曰班』이라 하였고 高麗朝 以後로는 文官 (東班)과 武官(西班)을 兼全해 야 兩班이라 하였으니 前者나 後者 間에 우리들의 祖上님들 은 堂堂한 兩班의 待遇를 받으 셨다.

우리들은 이러한 兩班의 後 裔라는 衿持만을 가질것이 아 니라 兩班답게 為先事業도 잘 하고 各自의 處身도 잘 해서 宗親必守(大同譜一巻四五頁 参照)』를 遵守함으로서 宗親間의 親睦이 教篤해 질것이니 이가 곧 『飮水齋』의 참된 眞理요、또 한 教訓인 것이다(끝)。



금·은 고급시계
보석
귀금속 예물일절

正安堂

住所 : 서울·鍾路区 禮智洞 172번지
(구·조양 8 호)
電話 : 265-6174·273-230 98

舊安東金氏와 新安東金氏의 区分 (3)

(전호에서 계속)

충무공의 아우이신 응해(應海)장군 또한 무과 출신으로서 인조 때 어영대장을 지냈고 숙종(肅宗) 때 총융사(總戎使)·어영대장(禦營大將)·훈련대장(訓鍊大將)등을 역임한 중기(重器)는 응하장군의 증손이었다。

또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성균관(成均館)이 중건되자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尚衷)·이숭인(李崇仁)과 함께 정주학(程朱學)을 일으켜 불교(佛教)를 배척하고 유교(儒教)를 숭상하는데 앞장 섰던 척약제(惕若齋·大司成公·휘 九容)와 태종 때 안정공(安靖公 휘 九德)、세조 때 시서(詩書)와 거문고에 능했던 대사헌 공(大司憲·휘 紐)·세종 때 천문학자(天文學者)로서 보루각(報漏閣)등을 만든 이조판서 공(吏曹判書 휘 墩)·세조 때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한 대사간 공(大司諫公 휘 壽寧)·도평의 공(都評議公 휘 九鼎)의 현손(玄孫)이며 임진왜란때 영의정인 서애 류성용(西厓柳成龍)의 외조부로서 당대에 시인(詩人)으로 명성 높은 송은 공(松隱公 휘 光粹)、그리고 서운관정 공(書雲觀正公 휘 綏)의 현손인 대사헌 공(大司憲公 휘 希壽)는 아들 직제학공(直提學公 魯)·전한공(典翰公 휘 弘度)·교리공(校理公 휘 瞻) 저작 공(著作公 휘 誠立)·동백 공(東伯公 휘 振)까지 六대가 내리 문과 급제한 가문이며 당시에 유명한 여류문인(女流文人)으로 이름 높은 허난섬헌(許蘭雪軒)은 역시 저작공 성립(誠立)의 부인이다。

위에 열거한 분들은 모두가 구 안동김씨로써 그 밖에도 많은 현사(賢士)가 있으나 상세한 기록은 생략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이 우리 구 안동 김씨는 고려초에서 이조 중엽의 후기(仁祖朝)까지 이름 높은 훌륭한 인물들이 대거 배출되어 권세를 떨쳤다。

新 安東金氏

新 安東은 이조(李朝)말엽의 세도가문으로서 60여년간 세도정치를 했다。 이같은 신안동 김씨는 총 十五명의 정승과 六명의 대제학(大提学)·三명의 왕비(王妃)를 배출하여 閲歴에서 단연 뛰어났고 특히 부자대제학·부자 영의정(領議政)과 두쌍의 형제 영의정을 낳아 더욱 두드러졌다。

혼히 安金東氏라면 누구든지 이조 때 순조(純祖)、헌종(憲宗)·철종(哲宗)의 三대에 걸친 약 60년간의 외척 세도를 연상하게 되고 따라서 세도를

친 약 六十년간의 외척 세도를 연상하게 되고 따라서 그 숱한 대작(大爵)도 모두 왕실 외척(王室外戚)으로서의 당연한 소산(所産)>인 것으로 생각된다。 순조의 장인으로 세도의 기반을 닦은 김 조순(金祖淳) 이전에도、형재 영의정과 부자 대제학을 비롯해서 당대에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함으로서 이조 중엽인 인조(仁祖) 의후로부터 세도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세간에서 흔히 안동 김씨를 가리켜 금 관자가 서말(金貫子三斗)라고 말했다。 그만큼 벼슬한 사람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 관자를 양적으로 따진다면 안동 김씨를 따를 집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新安東金氏의 始祖

김 선평(金宣平)은 신라 말、고창군(古昌:現 安東)의 성주(城主)로서 고려 태조(太祖)一三년(九三〇)에 권행(權幸:본래는 金씨)·장 길(張吉) 등과 더불어 후백제의 견훤(甄萱)군을 고창군에서 격파하고 고려 태조(王建)에게 솔선 귀부(歸附)함으로서 개국공신에 오르고 태사대광(太師大匡)이 되었으니、현재 三태사를 향사하는 태사묘(太師廟)가 安東市에 있다。

신 안동 김씨가 명문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이룬 사람은 이조 중기 후의 도정 김 극효(金克孝)이다。 그는 유명한 임당 정유길(林塘 鄭惟吉)의 사위요、광해군(光海君)의 장인인 류자신(柳自新)과는 동서(同婿)간이다。 김 극효는 본디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임당의 사위가 되면서 부터 두각을 나타내고、그의 아들 대에서 상용(尚容)·상헌(尚憲)등 정승이 나면서 부터 신 안동 김씨 중홍의 막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 극효의 아들 가운데서도 청음 김 상헌(清陰 金尚憲) 이야 말로 신 안동 김씨를 명문으로 만든 장본인이며、세도가문으로서 신 안동김씨의 주류는 사실상 청음의 자손이라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세간에서 신 안동김씨를 가리켜 장동(壯洞) 김씨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집이 지금의 효제동 근방의 장동에 살았기 때문이다。

청음은 월정 윤근수(月汀 尹根壽)의 문인으로서 선조(宣祖)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광해군 때 여러 벼슬을 지냈다。 본래 서인(西人)에 속했던 그는 인조 반정(仁祖反正=一六三二)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그 서인이 공서(功西)、청서(清西)로 갈리게 되자、사림을 배경으로 한、청서의 영수(領袖)로서 대제학을 거쳐 여러 판서를 역임했다。

인조 一四년 병자호란 때 예조판서로서 화의를 배척하다가 강화(講和)후에 파직되었고 그 三년 후에 청(淸)에서 명(明)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파병을 요청해 오자 배청숭명파(排清崇明派)인 그는 반대 소(疏)를 올림으로서 청나라 심양(瀋陽)에 까지 잡혀 가는 몸이 되었다。 그의 유명한 시조(時調) "가노라 삼각산아、다시 보자 한강수야"는 바로 이때 지은 것이다。

몇년 후에 심양에서 풀려나와 좌의정에 올랐다。 그의 후손에서만 『부자 영의정』『형제 영의정』 『부자 대제학』등 十二명의 증승과 三명의 왕비를 비롯해서 수십명의 판서가 났다。

한편 청음의 형인 선원 김상용(仙源 金尚容)은 성혼(成渾)의 문인으로서 인조때 우의정을 지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족을 시종하다가 강화성(江華城)이 마침내 함락되자 자결했는데 그는 명 문장과 명문필로 후세에 전한다。

정승을 지낸 인물 중에 김이교(金履喬=大提学·右議政·文貞公)는 그의 六대손이다。 그밖에 이양(履陽=憲宗 때 吏判)·영순(英淳=憲宗 때 吏判)·극균(克均=高宗 때 吏判)·응균(應均=禮判)·희진(喜鎭=工判 農商工部大臣 應均 의 子)등은 김 상용의 후손 이며 김 상용의 아우 청음 김 상헌(清陰 金尚憲)의 후손 가운데 정승을 지낸 수흥(壽興)、수항(壽恒)의 형제가 있고 수항의 아들 창집(昌集=領議政)·창협(昌協=大提学·禮判 등에 임명 되었으나 취임 하지 않음)·창흡(昌翕)·창업(昌業)·창집(昌緝)등 五형제는 문장으로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김 창립의 후손에서 三명의 왕비가 나면서 부터 신 안동김씨가 절정의 성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즉 김 창집의 아들 제겸(濟謙)에게는 아들 六형제가 있었는데、그중에서 맏이 성행(省行)·네째 달행(達行)·다섯째 단행(坦行)의 자손에서 순원왕후(淳元王后=純祖妃·達行의 손자 金祖淳 의 딸)·효현왕후(孝顯王后=憲宗妃·坦行의 曾孫子 金祖根의 딸)·철인왕후(哲仁王后=哲宗妃·省行의 曾孫 金汶根의 딸)등 각각 왕비 하나씩이 나와 三대에 걸쳐 세도를 잡았다。 신 안동김씨 의 기반을 닦은이는 김 조순(一七六五~一八三二)이다。 서기 一八〇〇년、정조(正祖)가 재위 二四년 만에 승하하고 그 뒤를 이어 一一세의 순조가 즉위하니 정순대비(貞淳大妃) 김씨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고 정조의 고명(顧命)을 받은 지 중추부사(知中枢府事) 김조순이 대정(大政)을 보필하게 되면서 세도를 잡고 순조 二년에 그의 딸이 왕비로 책립되었다。 그 二년 후에 순조가 나이 一五세가 되자 김 대비는 수렴청정을 거두게 되고 다음 해 김 대비가 승하하니 이때부터 국구(國舅)인 김 조순이 세도를 잡게 되었다。

즉 이 무렵을 전 후해서 김이익(金履翼=兵曹判書)·김이도(金履度=禮曹·刑曹判書)·김 달순(金達淳=右議政)·김문순(金文淳=吏曹判書)·김의순(金義淳=刑·兵·吏曹判書)·김 정근(金逌根=兵·吏·禮曹判書)·김 교근(金教根=兵·戸·刑曹判書)를 지내는 등 신 안동 김씨의 一족은 조정의 요직에 포진하게 되어 마음대로 세도를 부리게 되었다(다음호에 계속)。

原稿募集

本報発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 送付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읍니다。

一、論文=崇祖睦族과 倫理道德에 寄與되는 内容
一、各派宗中 및 宗親会에서의 行事에 対한 経過記事
一、宗親中에서 있었든 美談佳話 및 善行
一、職位의 陞進이나 異動事項、海外旅行関係 逸話
一、先祖에 関係되는 傳説
一、其他 宗親등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廣告接受案内

本会報를 発刊함에 즈음 해서 各 宗親들로부터 人事広告의 要請이 있음으로 7월24일 理事会議에 提案한바 다음과 같이 掲載料를 徵收하기로 決議하였음을 通告합니다.

1号=7 cm×1 cm 5,000원
2号=7 cm×2 cm 8,000원
3号=7 cm×3 cm 10,000원
4号=7 cm×4 cm 15,000원
5号=7 cm×6 cm 20,000원
6号=7 cm×7 cm 25,000원
7号=9 cm×7 cm 30,000원
8号=9 cm×11.5cm35,000원
9号=9 cm×23cm 60,000원

vip 신사복 결혼예복 전문
대우양복점
代表 金重默
서울 중구 인현동2가73－1(풍전호텔1층113호)
TEL. 267-6771

－忠孝教育－

書雲観正公派
安養活草國民學校長 圭　晃

1. 忠孝教育의 必要性

사람은 〈착하고 슬기롭게 씩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為해서 教育에서는 身体的인 面보다 精神的인 面, 即 "마음"에 더 比重을 두어야 한다. 勿論 教育活動中에는 身体的, 技能的 領域에 関聯되는 것이 많지만 精神面을 度外視할수는 없는 것이다. 人間으로서의 올바른 "精神"을 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人間으로서의 올바른 "精神"은 個人이나 家庭, 社会, 国家에 있어서의 現実問題를 解決하는데 가장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우리는 忠孝教育이 根幹이 되는 것으로 生覺한다.

忠孝는 우리나라 古代로 부터 伝承되어오는 가장 으뜸되는 美徳이다.

우리 祖上들은 나라에 対한 忠誠과 父母에 対한 孝道를 三綱五倫의 基本으로 삼고 所重히 지켜왔다. 이는 우리 中始祖이신 忠烈公(諱 方慶) 行狀으로나 公의 後孫으로서 高麗와 李朝를 거처 近代에 이르기까지 名門巨族으로서 名公巨儒와 高官大爵의 神道碑 墓碣 行狀等의 여러 金石文에서 許多히 発見 確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伝統的 美徳이 西欧文明의 影響을 받아 近來에 와서 漸次 사라저가는 傾向은 極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가 오늘의 忠孝教育을 強調하는 것은 伝統的인 美徳에서 만은 아니다.

그것을 오늘의 우리나라가 切実히 必要로 함은 時代的인 要求일뿐 아니라 그 어느때 보다도 確固한 主体的인 国家観과 道徳観이 要求되는 까닭이다. 또한 우리 民族의 歴史的 文化的 遺産을 우리의 后孫들에게 자랑스럽게 伝承 発展시켜 주어야하는데 우리의 現実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밖으로 恒常 北韓共産徒輩의 挑戦을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西欧文化의 無批判的인 受容으로 自我를 喪失하여 昨今의 社会相은 子息이 어버이를 죽이고 女子가 지아비를 토막살인을 하고 毎日같이 절도살인의 강력범이 續出되는 国内 四大日刊紙에서 끔직스러운 事件들이 報道됨으로서 社会의 極悪相은 헤아릴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社会相을 감안 할 때 우리는 国土를 防衛하고 自我를 確立할수 있는 民族的 主体性이 要求되는 마당에 忠孝教育이 人間으로서의 올바른 人間「精神教育」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忠孝教育의 本質

忠孝教育은 한마디로 말해서 倫理의 基本인 忠孝를 훌륭하게 生活化하는 誠実한 人間을 形成하자는데 있는바 忠은 国家民族에 対한 国民의 価値観이고 孝는 父母에 対한 子息의 道義로 生覚한다. 그럼에도 一部에서는 지나치게 形成化된 李朝時代의 忠孝를 生覚한 나머지 君主에 対한 百姓의 片務的 道理라하고 孝는 子息의 自我実現을 無視(王祥型 傷指型 殺身型 守墓型 外職型 孝道等)한 一方的 任務로 生覚하여 民主主義社会에 逆行하는 価値道徳 이라며 懷疑感을 갖는다. 「臨乱不忘国曰忠」(忠毅公)이나 「慮国忘家曰忠」(忠正公)의 諡號教旨가 뜻하듯 世上이 어지러울때 나라를 잊지 않는 것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 집을 잊어버리는 것을 忠이라고 하여 忠의 対象을 나라로 生覚하였다. 또한 「慈仁愛人曰孝」나 「五宗安之曰孝」(孝簡公)의 諡號教旨의 뜻과 같이 慈愛와 仁慈로 사람을 사랑하고 五宗(高祖父 曽祖父, 祖父, 子, 孫等 五代)의 親族을 두루 平安히 하는 일을 孝라고 했으며 孝経이나 明心宝鑑의「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 孝之終也」나 「父慈子孝」 등을 볼때 孝의 本質이 自虐的 희생이 前提되거나 片務関係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忠孝란 바로 行함으로써 眞理窮行으로 人間生活에 善과 義를 存在케 하고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人間의 基本的 道徳이다. 動物과 다른 人間만이 할수 있는 立身行道 그 自体가 忠孝이다. 社会的으로 機待되는 全人的 自己完成의 길이며 文化創造의 方法이기도 한 것이다.

忠孝란 주고 받고 하는 사랑의 情으로 父慈子孝하고 敬長愛幼하며 愛民報国함으로서 人間社会의 秩序를 바르게 하는 雙務的 価値이다.

忠孝는 주고받는 사랑의 情에서 이룩된다. "仁"의 忠孝와 愛人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온世上 萬物의 生成原理이고 人間의 関係的 秩序를 바르게 하는 原動力이다. 이같은 忠孝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雙務的 倫理인 것이다. 忠孝란 自己할일을 다함으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互恵와 同感의 共同体 倫理이다.

忠孝는 祖上에 대한 血縁의 情으로 忌祭와 새해의 차례 仲秋의 省墓 時祭 등을 드리고 祖上을 받들고 宗親間의 血縁을 찾는 것이며 나아가 檀君聖祖를 받들고 単一民族이라는 民族意識에서 우러난다. 共同体에 対한 사랑의 行動哲学이며 共同体와의 一体感에서 忠孝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自己가 所属하는 家庭, 職場, 氏族 関係, 宗派, 郷里, 国家와의 一体感을 가지면 共同体에 対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이 사랑은 忠孝의 基本的 精神姿勢가 된다. 父母와 나와의 関係가 없고 氏族宗派 親戚間이 나와의 関係가 없고 職場이나 国家가 나와 아무런 関係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忠孝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나와 共同運命体요 共同感情体라는 一体感이 있을때 그의 隆盛을 나의 発展의 根本으로 生覚하게 되는 것이다. 忠孝란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道徳이고 人間秩序를 為한 雙務的 関係이며 互恵와 同感의 共同体 倫理로서 縱으로는 父母와 祖上과 하늘을 恭敬하고 横으로는 兄弟와 郷土와 国家를 사랑하는 自己愛의 拡散이며 愛国愛族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自己의 主心으로 모든 일에 精誠을 다하여 父母와 윗사람을 받들고 나라에 奉仕하는 愛国愛族이 忠孝의 本質이다.

「修身齋家 治国平天下」라는 말과 같이 自己 몸을 닦고 家庭에 忠実한 姿勢가 国家社会에 대한 忠誠으로 昇華되는 것이다.

忠孝의 本質이 이럴진대 忠孝란 時代에 따라 나라에 따라 境遇에 따라 있을 道徳이 아니다. 人間歴史가 계속되는 限 이世上 어데서나 古今을 通하여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人間社会에서 必然的으로 지켜져야할 萬古의 眞理인 것이다.

우리族譜의 歷史的 考察 (3)

第七次의 乙亥大譜는 三十三年前인 壬寅大譜 보다 그 卷數가 三卷이나 적은것은 洋紙를 使用했고 또 鐵鑄活字를 使用했다는데도 原因이 있겠지만 그때는 日本의 浸略을 받아 庚戌의 恥辱을 당한 후 처음 있는 修譜事業이라서 宗親들 中에는 日本이나 혹은 滿州地方으로 移住한 사람도 또한 많아서 呈單이 不可能한 事實도 許多했다。

또 이때는 原稿가 作成되면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提出해서 許可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特히 吾宗中 같이 日本과 直接 對峙한 祖上이 많은 宗中 에서는 許多한 記事가 削除되었다。

一九七九年 己未에 우리 安東金氏는 第八次로 大同譜를 刊行하였다。

乙亥大譜가 發刊된지 十年만에 우리나라는 日帝로 부터 解放되어 祖國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마르기도 前에 國土分斷의 悲運에 逢着하니 뜻있는 人士들이 修譜의 生覺은 가졌으나 北韓의 同族을 두고 部分的인 族譜는 不可하다는 걱정 속에서 歲月은 다시 三十餘年이 흘러갔다。

그동안 在京宗親으로서 뜻있는 人士들은 이를 慨歎하던 나머지 一九六八年 十一月 三日에는 二百餘名의 宗親들이 宗廟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大宗會를 結成하여 어려운 逆境속에서도 忠烈公先祖의 齋室重修와 神道碑建立 等 事業을 해왔고 一九七七年 八月에는 서울 道峰區 奬洞의 按廉使公派宗中으로 부터 會館建立 敷地 一一三坪을 寄贈받아 會館을 建立코저 하였으나 建築費를 마련할 方途가 없었고 이 問題를 두고 여러번 會議를 거듭한바 마침내 "아무리 分斷된 國土에서 宗親間이 分離되어 있더라도 五十年이 가깝도록 修譜事業을 放置하고 遼遠한 統一만 기다릴 수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一九七七年 十二月 二十六日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大同譜編纂委員會를 構成했는데 그 部署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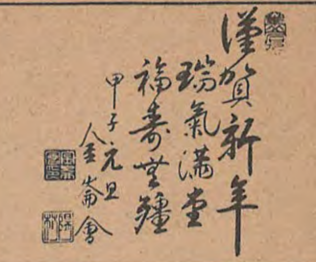
委員長 翼元公派明會·副委員長 正儀公 派書默·提學公派相均·翼元公派泰亨·編纂主幹按廉使公派崙會·總務 按廉使公派斗會·監事 翼元公派瓚默·當任監事 按廉使公派卿辰·財政部長 開城尹公派賢潤·常任顧問 提學公派利浩·顧問 翼元公派行默·按廉使公派鳳演…그밖에編輯·浄書·校正委員等三十餘名이 譜役에 着手해서 不過 二年以內에 全十卷(一萬三千頁)의 工役을 完成하고 無慮 三千九百帙의 巨作을 印刷配付하였고 그래도 不足해서 다시 希望에 따라 壹千帙을 再版하여 派譜로 分帙配布하였다。

이때는 印刷術도 高度로 發達해서最新式輪轉機와 모든 施設이 갖추어진 大田 譜典出版社에서 高級模造紙에 清朝楷書体의 三號와 五號活字로 印刷하고 많은 祖上의 遺蹟地와 墓所를 寫眞으로 印出하고 지금까지 純漢文으로 되어있는 舊譜의 序文이나 跋文·行狀文과 그밖에 여러 先世文獻 等을 알기쉽게 번역해서 原文과 함께 掲載하는 등 完全히 舊殼에서 벗어나 時代에 適應한 規模를 갖추었다。

또 凡例를 改善해서 先·後配의 差別을 없애고 다만 配字로만 記錄하여 序次로서 알수있게 하였고 女(딸)도 같은 子孫이란 見地에서 그 이름(名)을 올리고 옆에 사위(壻)의 姓名과 本貫을 表示해서 外孫의 血統을 밝혔고 또 配位도 姓名을 밝혀서 門戶가 開放된 民主主議 原則을 反映하였다。

또 生·卒의 年號는 世界共通의 西紀年號와 干支를 使用해서 後日에 年數計算에 便宜를 취하였다。

우리 安東金氏는 第八次 己未大譜를 契機로 서울 東大門區 徽慶洞 一一二~四九에 雄壯하고 雅淡한 會館을 마련해서 祖上累代의 所望을 成就시켰으니 이는 우리 宗史에 昭然히 빛날것이고 우리의 總本山으로서 모든 宗務의 産室로서 길이 保存될것이다。(完)



各種生花
꽃바구니
화　분
電話 注文歡迎
●迅速한 配達●
●低廉한 價格●
●宗親을 為한 特別奉仕●
香田園藝
(향　전　원　예)
代表 金 在 均
住所 :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중앙빌딩 106
電話 : 783-3166~7, 725-1515